

장항의 산업유산 분포 현황과 도시 형성 과정

박재민* · 성종상**

A study on the industrial heritage in Jang hang

Jaemin Park* · Jongsang Sung**

요약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은 한국 근대 산업화 초기, 일본의 미곡과 자원 침탈을 위해 조성된 산업도시로서, 한국 근대사에 있어 중요한 장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개발 논리 속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장항의 산업유산은 서서히 멸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항 내 남아있는 산업유산의 분포 현황을 찾고 그 산업화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존 현황조사에서는 주로 문헌조사와 현장 확인을 주로 하였지만, 장항의 경우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통한 주민의 '장소기억'을 수집하여 보완하였다. 그 결과 45개의 현존시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산업시설 17개소, 이를 지원하던 주택, 숙박, 종교, 문화 시설 20개소, 제련소 벽돌 등의 기타 8개소를 확인하였다. 장항의 산업화는 1920년대 도시계획과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장항제련소, 장항항, 장항선과 장항역의 3대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생태계 조직처럼 성장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을 지나며 국가 산업구조 변화와 환경오염 문제 등의 이유로 산업도시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며 근대 도시 장항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주요어 : 근대문화유산, 역사경관, 산업경관, 경관해석, 장소기억

Abstract : This study is aimed to research the industrial heritage in Janghang town which was established as an industrial city in the early modern era. In general, for the method to find historical heritage, field survey and literature review have been commonly used i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however, suggests another method which is called 'place memory' that is a memory in place. This research extracted it from citizen in Janghang town. As a result, 45 historical places and landscapes were found in this study while only 7 were found in the previous research. Janghang town has three main points as industrial heritage, which are the Janghang smelting factory, Port and Station. Those are connected with supporting facilities such as housings, schools, banks, markets, and religious facilities including offices and factories related to the main functions for themselves, and so forth. Janghang town which was a famous industrial city industrialized and modernized between 1920 and 1980 in Korea. After 1980's, However It was decayed because of the change of industry structure and the pollution of air and soil.

Key Words : modern heritage, historical landscape, industrial landscape, landscape interpretation, place memory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¹⁾은 한국 근대 산업화의 비교적 초기인 1930년대 미곡과 금 등의 자원침탈과 수출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화지역(Industrial Site)이다. 특히 장항제련소와 장항항 부잔교는 한국 근대화의

대표적 상징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될 만큼 근대 산업사에 있어 중요한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장항의 대표적 산업유산인 장항제련소 보전 관련 국제 심포지엄 개최,²⁾ 일부 공무원의 노력으로 창고 1개동 매입과 그 활용 구상, 그리고 여객수송이 정지한 장항선과 장항역의 공원화 등 주요 산업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보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Researcher,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cls032@snu.ac.kr)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js@snu.ac.kr)

만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역사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측면에 집중하고 있어, 이에 앞서 진행되어야 할 장항 지역에 남아있는 산업유산의 현황조사,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소홀한 편이다. 이로 인해 장항 내에 남아있는 많은 산업유산들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훼손 및 멸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토대로 장항지역 근대 산업유산의 산업화 과정과 분포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하여 산업화에 따른 장항의 도시 형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소도시인 장항의 경우 관련 문헌자료가 적어 연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장소기억’을 인터뷰로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2. 연구사

장항 지역의 산업화와 관련한 연구로는 산업화 초기 도시의 비전과 현황을 기술한 阿部薰(1937) 『발전하는 장항』과 장항의 역사에 관해 기술한 장항읍(1997, 2010) 『장항의 역사와 문화』가 있다.

장항 근대 산업유산의 현황조사 관련 주요 연구는 2004년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충청남도 근대문화유산 현황조사³⁾ 사업이 있다. 하지만 도 단위의 전국적인 조사로 연구 인력과 시간적 한계가 있어, 지역 내 숨은 유산을 찾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당시 장항제련소 포함 7개소가 조사되었다.

산업유산의 지역 단위 현황조사 연구로는 송석기(2004)는 군산, 조흥석(2003)은 진해, 김일진(1988)은 대구, 정이순(2004)은 부산 등의 연구가 있다. 연구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문헌자료를 통해 1차 현황을 파악한 후, 조사된 대상의 현존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연구는 주로 현황조사와 시계열적 역사변화를 기술하였고, 일부 주요 근대 건축물의 특징을 기술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완적으로 인터뷰를 통한 장소기억을 수집하였다. Casey(1987, 2000)는 장소기억이란 장소에 남겨진 기억을 말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과거를

담고 있어 개인적 기억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기억을 추출할 수 있다. 특히 장소기억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기억과 생생한 이야기를 이끌어냄으로써 대상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장소기억’ 관련 연구는 주로 역사학, 교육학과 인문지리학 분야에서 최근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기억담론의 이론적 구축은 주로 노라(Pierre Nora, 1984~1992)의 『기억의 장소』, 알박스(Maurice Halbwachs, 1980)와 아스만(Jan & Aleida Assman, 1999)부부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의 벤야민(Walter Benjamin, 1950), 페렉(Georges Perec, 1975), 헤셀(Hessel, 1929)은 산보자(flaneur)로서 개인의 기억을 통해 장소기억을 기술하였다. 국내연구는 이론 소개(신지은, 2011; 윤미애, 2005; 김용중, 2011; 전진성, 2005)와 일부 장소와 사건을 중심으로 장소기억담론이 적용되었다. 대표적으로 권귀숙(2004)은 제주주민의 4.3사건의 장소기억을 재구성하였고, 전종환(2009a; 2009b)은 장소기억을 통해 피맛골, 도시 뒷골목을 해석하였고, 홍금수(2009)는 장소의 경관해석 방법론으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 외 인터뷰를 통해 강동진(1997)은 양동마을의 구조 특성을 발견하였고, 김정수(2003)는 취락의 형성 과정과 간척지 변천을 설명하였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근대 초기 산업도시인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내 분포하고 있는 산업유산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장항 내 산업유산의 분포 현황조사를 중심으로, 산업화과정과 도시 형성 과정을 해석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1920년 전후 토지매립부터 1990년대 현대적 산업시설 건립기까지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 현장조사와 인터뷰(interview)로 진행하였다. 문헌자료는 고문서, 지역 역사서, 신문기사와 지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장조사는 총 8회 12일간,⁴⁾ 인터뷰는 총 63명⁵⁾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각 연구 방법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장항의 산업화 과정 해석은 문헌분석을 토대로 인터뷰 내용을 보완하여 기술하였다. 인터뷰 구술 방식

표1. 1단계 문헌조사를 토대로 발굴한 대상지

구 분	대 상
산업 시설 (28)	조선총독부_곡물검사소_장항출장소, 장항제련소, 장항항, 남북면업주식회사_장항조면공장, 조선농회장항비료 배합소, 경남철도자동차부, 관자동차부, 장항트럭, 금만인력거장, <u>충남정미소</u> , 예산정미소 장항지점, 옥정정미소, 장항역, 장항잔교역, 수동잔교역, 서천금융조합장항지소, 조선물산 장항출장소, 군산해운 장항출장소, 금강토 주식회사, 동양척식식수동농장 미곡창고, 상은창고, 경남상옥창고, 경남철도, 농업창고, 장항조창고, 차부사무 실, 향만노동자 사무소
지원 시설 (40)	마동면사무소, 장항경찰관 주재소, 장항우편소, 장항세관출장소, 장항편동출장소, 장항파출소, 장항공립심상 고등소학교, 마동공립보통학교, 통구의원, 인정전의원, 조선식산은행, 안동주조장, 장항여관, 동일은행장항지 점, 암전여관, 남본여관, 만덕여관, 대흥여관, 경남여관, 극장유락좌, 장항육장, 제련소구락부, 면영 장항시장, 당구금강구락부, 면영격리병사, 장춘관, 파리식당, 장항신사, 궁기사, 조동종 보은사, 편동과수원, 진의진언중 장항포교소, 조선불교 은숙사, 장항포교소, 장항 장로교회, 대동의원, 충청남도 장항상옥, <u>중앙극장</u> , 장항농고 교장관사, 죽본주조장

* 밑줄은 현존하는 시설

은 일정 주제에 관한 구술 증언(oral testimony)⁶⁾을 면접자가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기술은 직접인용보다는 장소에 관하여 면담자와 문헌자료의 공통된 관점과 정보만을 취합하여 선택적으로 기술하였다. 세부적으로 대상의 명칭은 면담자 모두 또는 다수가 동일하게 확인한 것만을 기술하였고, 대상에 관한 내용은 면담자들이 동일하게 증언하였거나 문헌자료와 교차비교하여 검증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그 외 중요한 내용이지만 불확실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추정’으로 기록하였다. 구술 대상자는 주로 전 학교장과 교사, 부동산 관련 업주, 전 제련소 및 관련 시설 노동자, 지역 공무원과 향토사학자, 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장항 산업유산의 분포 현황조사는 3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 문헌분석은 1937년 발간된 ‘발전하는 장항’, 1997년 발간된 ‘장항의 역사와 문화’, 1926-57년까지 발간된 신문자료 74건⁷⁾을 참조하여 목록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기존 문화재청의 연구 방법을 참조하여 대상에 관한 기록을 목록화하고, 산업유산을 위한 별도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각 장소에 번호⁸⁾를 부여하였다. 이를 토대로 2단계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존여부를 기록하였다. 문헌상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 남아있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주민 인터뷰를 통해 취득하였다. 3단계는 인터뷰를 통해 추가 작성한 목록을 바탕으로 대상 검증과 특징에 관한

주민의 장소기억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다. 특히 2단계에서 재목록화한 대상의 경우 구두로 확인한 경우가 많아 명칭이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위치일 수 있어 수차례의 확인 및 검증 과정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가능한 현황의 확인은 면담자와 현장에서 진행하였고, 현장 확인이 어려울 경우 관련 문헌자료와 사진을 면담자에게 제공하여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존 지도(조선시대 서천읍지와 해동지도, 1895년 명치 28년 제작 목측도, 1925년 지형도, 1936년 추정 장항항 수축계획도, 1954년 미 공병단 제작 지형도, 1971·1973·1976·1980·1988·1992·2010년 지형도 및 연안해역기본도)를 이용하여 도시의 확장과정을 지도화 하였다. 1차적으로 기존 지도 내 기재된 주거지, 산업화 지역 등을 Adobe Illustrator CS3를 이용하여 지도를 중첩시켜 변화상을 도식화 하였고 일부 위치가 부정확한 지도는 Adobe Photoshop CS3를 이용하여 주요지점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지도와 더불어 문헌자료와 주민의 장소기억을 이용하여 간석지 매립지역, 주거지와 산업화 지역의 변화과정을 보완하여 반영하였다. 특히 간석지 매립의 경우 기존 지도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장소기억이 효과적이었으며, 일부 지도 내 표기되지 않은 주거지에 대한 사항과 각 공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⁹⁾

II. 근대 장항의 산업화 과정 해석

1. 근대 장항의 조성 목적

근대 장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조성 목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장항의 조성 목적은 한국의 근대화 보다는 일본의 사회적 변화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18년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하며 쌀(미곡) 파동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에는 많은 양의 미곡이 필요하게 되었다(장항읍, 1997). 이에 조선총독부는 1920년 이후 조선에 토지의 개량, 경종법 등을 도입하여 쌀의 증산을 위한 다양한 근대적 기술과 기법을 전수하였다(장항읍, 2010). 이를 통해 증산된 쌀은 일본으로 본격적으로 유출되었으며 장항의 경우 충남 전 지역, 경기와 강원 일부지역 60만석의 미곡이 일본으로 유출되었다(방안균, 2012.3.21).¹⁰⁾ 당시 부산, 인천, 군산 등을 통해 미곡이 유출되었으나 충청도 일대의 경우 금강으로 가로 막혀 있어 쌀수송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새로운 항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장항항과 경남철도(장항선)를 건설하게 되었다. 장항선은 수송효율화를 위하여 도시 중앙으로 관통하였고 장항항과 장항제련소로 연결되었다(유승광 구술, 2006.7.26¹¹⁾; 장항읍, 1997).

또한 일본은 1937년 중국 대륙 진출을 앞두고 제철, 공작기계, 유류 등의 수입을 위해 자금, 특히 교환수단으로 중요한 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유승광 구술, 2006.7.26). 결국 장항제련소는 군수 자금확보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던 것이다(장항읍, 1997). 당시 조선 내 대부분의 금은 장항제련소에서 생산되었으며 일본으로 유출되었다.

이처럼 근대 초기 장항의 성립은 자원침탈, 특히 일본에 필요한 미곡과 군수자금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2. 근대 장항의 산업화 과정

근대 산업도시 장항은 1920년 초 매립 논의를 시작으로 1929년 일본인 미야자기(宮崎)의 주도로 간척지

표 2. 근대 장항 지역 산업화 시기 구분

기간	시기	주요 변화 및 내용
1929 -1945	형성 및 성장기	1928년 경남철 정거장 장항리 결정 1929년 간척지공사 시작 1931년 8월 경남철도 개통 1932년 장항항 개항 1936년 6월 장항제련소 점하 1938년 장항읍 승격
1945 -1957	침체기	1945년 광복, 장항제련소 정지 1955년 철도국유화 정책, 장항선으로 개명
1957 -1989	재 도약기	1957년 이승만 대통령 방문 1961년 박정희 의장방문 1962년 한국광업제련공사 재가동 1979년 1월 제련소 굴뚝 개건축
1989 -현재	쇠퇴기	1989년 제련소 제련공정 폐쇄 1993년 금강하구둑 완공(토사적층) 2009년 11월 장항-군산 도선 정지 2010년 장항선 여객수송 정지

공사와 도시계획안을 토대로 시작되었다(阿部薰, 1937; 장항읍, 1997). 이어 1931년 8월 경남철도(현 장항선)가 개통되었고, 1932년 4월에는 한국 최초의 부잔교를 보유한 장항항이 완공¹²⁾되어 군산의 대안 신흥도시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장항읍, 1997). 이후 장항의 대표적 산업시설인 장항제련소가 1935년 2월 시작으로, 1936년 6월 주요 공장과 용광로 설비를 완료한 후, 1937년 1월 전망산 위에 100미터 높이로 완공되었다(阿部薰, 1937; 장항읍, 1997; LG금속, 1997). 당시 장항제련소는 한국의 3대 제련소 중의 하나였으며, 아시아 최대 높이의 산업시설로 스펙터클한 근대 산업경관을 연출하였고 이에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¹³⁾ 장항선과 장항항의 건설 후, 각지에서 모여든 미곡 관련 미곡창고, 미곡검사소, 곡물상조합 등의 산업시설이 건설되었고, 관련한 은행, 운송회사 및 기관, 선박조합, 상육조합 등의 상업시설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관공서, 학교, 여관, 경찰서 등이 건설되었으며, 이러한 산업 관련시설의 건설과 함께 전등, 전화, 간이수 등의 근대적 인프라가 도시 전역에 설치되었다.¹⁴⁾ 이러한 도시 산업화는 장항제련소 건립과 함께 더욱 가속화 되었고, 산업 노동자가 전국 각지에서 유입되었다. 산업화에 따른 장항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1920년 전통 취락지였던 장항은 수 십호에 불과

하였지만, 1931년 1,256명, 1936년에는 7,856명에 다르며, 불과 10년 남짓 사이 전통적 자연경관은 근대화된 산업경관으로 급격히 변모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장항은 산업화로 인구와 도시 공간이 급속히 성장하였고, 1938년에는 삼척, 원주와 함께 읍으로 승격¹⁵⁾되었다. 이로 인해 서천군에는 현재 2개의 읍이 존재하며, 이는 근대 이전의 전통적 3개 권역(한산, 비인, 서면)과 근대 장항의 권역으로 구분된다(유승광 구술, 2006.7.26; 장항읍, 1997).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며 장항의 다수 산업시설이 기능 정지되었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오랜 기간 결손상태로 남게 되었다(유승광 구술, 2006.7.26; LG금속, 1997).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의장 등이 장항제련소의 재가동을 위해 방문하였고, 당시 국가적으로 2차 산업진흥정책¹⁶⁾을 펼치며 장항제련소는 1962년 한국광업제련공사로 재출범하게 되었다(LG금속, 1997;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2010). 이후 장항제련소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비철금속제련공장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장항의 산업은 장항제련소를 중심으로 재도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당시 장항제련소는 근대 산업화의 상징으로 관광지와 영화촬영장으로 각광을 받았다(그림1-d, 유승광 구술, 2006.7.26). 장항항의 경우도 이용이 급증하며 1964년에는 충남 유일의 국제항으로 승격되었다. 하지만 장항항과 장항역 인근의 창고와 공장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미국, 목화 등의 침탈을 위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타 기능의 공장 시설은 제재소, 물류창고, 선박수리소 등으로 전환되어야 했다.

8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장항의 산업과 도시는 다시 쇠퇴기를 맞이한다. 1979년 장항제련소는 낡은 굴뚝을 철거하고 새롭게 재건축하며 도약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생산량 증대에 따른 대기오염이 심화되어, 인근지역은 물론 공주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온산제련소 건립으로 1989년 장항제련소는 제련공정을 폐쇄하였다. 다만 LS전선과 LS니코에서 소량의 제련¹⁷⁾을 하고 있으며 관련 공장 시설



a. 1950년대 제련소 전경
사진출처: 권혁재(1999)



b. 제련소 슬래그벽돌 담장



c. 1961년 박정희 의장의 장항제련소 방문
<사진 230> 1961년 장항제련소 등 생산 현장을 방문한 박정희 의장



d. 1961년 제련소 내 영화촬영 기념촬영
'밤을 통곡하다'



e. 1960년대 장항항,부잔교에 입항한 동명호 전경
사진출처: 유승광 제공



f. 장항제련소와 농민의 일상경관

그림 1. 장항제련소와 일상경관(1960~80년대)

터의 일부가 남아 있다(조형구 구술, 2006.9.30; 박종천 구술, 2012.3.21¹⁸⁾). 장항항의 경우도 1990년 금강하구둑의 완공에 따른 토사 적층이 심화되어 대형선박 접안이 어렵게 되었고 결국 국제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며 현재는 거의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이선구 구술, 2008.10.25; 이대성 구술, 2009.4.20).¹⁹⁾ 또한 금강하구둑의 건설은 충남과 전북 이남을 육로로 연결함으로써, 과거 양 지역을 수로로 연결해 주던 장항선과 장항도선장의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최근에는 철로 직선화 사업이 추진되며 장항역을 통과하는 일부 산업화물 수송을 제외한 여객수송은 2010년부터 전면 중지되었다(서천군, 2010; 이선구 구술, 2008.10.25).²⁰⁾ 반면 90년대 들어 도시계획이 진행되지 않았던 장항제련소와 장항시가 사이 지역에 한솔제지(1991), 풍농(1989), 태평양 유리공장(1990) 등이 새롭게 건설되었다.

III. 장항 근대 산업유산 분포 현황과 도시 형성 과정

1. 산업유산 분포 현황

장항 산업유산의 현황과 분포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68건의 목록을 작성하였다(표 1). 2단계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현존시설 9개소, 멸실된 시설 10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 다수의 시설은 이미 사라졌지만, 인터뷰 시 주민 구술을 통해 문헌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향만준설공사 사택촌, 장항제련소 사택촌, 한양여관, 장항교회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조사를 통해 58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총 67건을 재목록화 하였다. 이후 3단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45곳의 현존 시설, 22곳의 멸실된 시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로 조사 기간(2007~현재) 중 개발 압력 속에서 주요한 산업유산 4곳(미곡창고, 농업전수학교 일부, 남북면업주식회사, 미리미예식장)이 멸실되었다.

조사결과 장항 내 총 45곳의 현존시설을 확인하였다. 제련, 철도, 항만, 미곡, 창고 등의 산업시설 17곳,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된 주택, 숙박, 종교, 문화시설 20곳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도시의 확장과 쇠퇴에 따라 발생한 시기별 도시경관과 재료 등의 기타 자원 8건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현황을 토대로 살펴보면, 장항은 제련, 항만, 철도의 3대 산업유산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항제련소와 관련하여, 제련소 사택 및 합숙소, 황금정 등의 주거시설, 유흥주점, 시장 등의 상업시설과 공장 등의 시설이 조성되었다. 주거시설은 다수 현존하고 있고 공장으로는 태흥광업소가 남아 있으나, 구락부(클럽)등의 유흥주점과 상점 등의 상업시설은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대표적으로 제련소 사택 및 합숙소는 67년 재건축되었지만 대부분 원형을 유지한 채 남아 있었으며, 장항제련소에서 버려지는 슬래그



그림 2. 1, 2단계 문헌자료를 토대로 현장 확인한 장항 산업유산 분포 현황

표 3. 장항 지역 근대 산업유산 조사 현황

분 류	충청남도 조사(2004)	연구자 조사	
		1, 2단계 (문헌조사)	3단계 (인터뷰)
산업 시설	제련	1	1(1)
	철도	0	6(1)
	항만		3(2)
	미곡	0	4(2)
	창고	1	5
	공장		2(1)
산업 지원 시설	주택	4	0
	숙박	0	6
	종교	1	6(1)
	문화	0	5
	의료	0	3
	공공	0	5
	교육	0	3
	상업	0	11
기타	경관	·	·
	기타	·	·
계	7	68(9)	67(45)

표 4. 장항 3대 산업시설 관련 산업유산

	제련	항만	철도
중심 산업시설	장항제련소	장항항, 부잔교	장항선, 장항역
주변 관련시설	제련소 벽돌, 제련소 사택, 제련관련시설	항만준설공사 사택촌, 광양조선공업 항만노동자 사무실	미곡창고, 조선정미소, 곡물검사소
	황금정 마을	한양여관	
	농업전수학교, 장항교회, 시대별 도시경관		

아 지역 내 주요한 건축재료로 대체되며 지역의 색채 경관을 형성하였다. 장항항과 장항부잔교의 건설을 위해 항만준설공사 사택촌이 건설되었고, 관련하여 조선소 및 지원시설이 조성되었다. 현재 장항 부잔교, 항만준설공사 사택촌, 충남 최초의 조선소인 광양조선공업소, 항만노동자 사무실이 남아있다. 장항선과 장항역과 철도 숙소가 일부 남아 있으나 최근 공원과 미디어센터 건립으로 인해 철거 예정에 있다.

장항시내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산업유산은 미곡창고이며, 미곡 관련 충남정미소, 조선정미소 사무실, 조선총독부 곡물검사소 등이 현존하고 있다. 그 외 장항교회, 감리교회(추정) 등의 종교시설, 장항 농업전수학교 등의 학교시설, 장항극장, 중앙극장, 미라미예식장 등의 문화시설 등이 현존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미라미예식장(사진관)은 장항지역 내 대소사

로 만든 '제련소 벽돌, 슬래그 벽돌'(김경필 구술, 2006. 9.30; 방안균, 2012.4.30²¹⁾; 그림 1-b)은 건축재료로 사용되어 장항항 야적장, 건물, 담장 등 도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슬래그벽돌은 방한, 방열, 방음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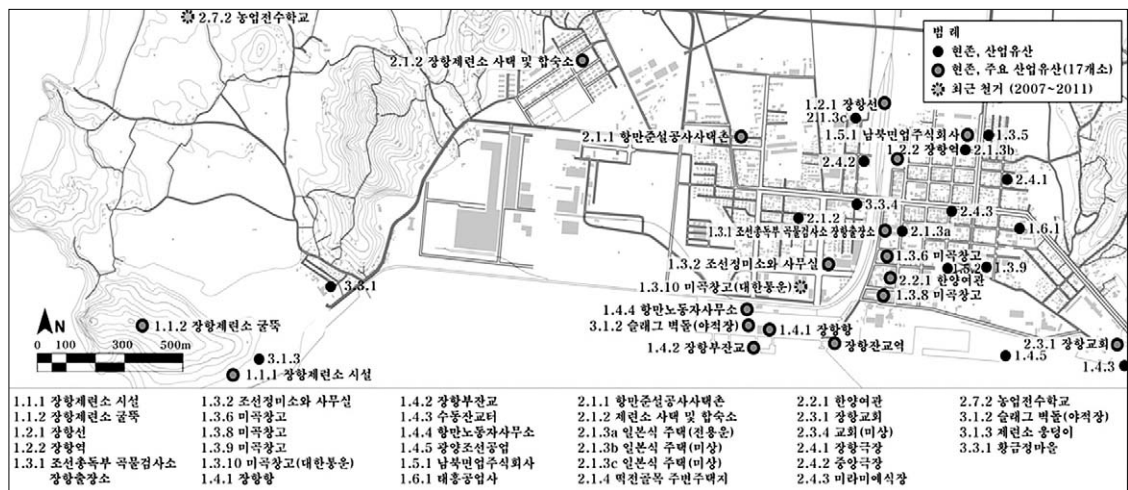


그림 3. 3단계 인터뷰와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확인한 장항 산업유산 분포 현황

가 이뤄진 장소로서, 지역 사진작가였던 소유주는 지역의 많은 사건과 기억을 사진으로 남겨 놓았다. 그 외 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쇠퇴에 따라 시기별 경관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장항의 도시 형성 과정

앞서 연구한 장항의 산업화과정과 분포 현황을 토

대로 도시 형성 과정을 지도와 연계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930년 이전까지의 장항은 산기슭 일부에 위치한 전통적 자연취락이 전부였다(그림 4.b-1). 하지만 이후 장항은 도시계획, 간석지 매립, 철도, 항만, 특히 격자형도로망을 중심으로 근대적 산업도시의 기본 구조가 완성 되었다(그림 4.b-2). 도시화 초기인 1930-1936년

표 5. 장항 지역 내 현존 산업유산 및 특징

구분	번호	분류	명 칭	특 징	건립연도	소유	현용도
산업시설	1-1-1	제련	장항제련소 및 주변시설	남한 최초의 건식제련소, 제련소 단지 내 일부 산업시설 남아 있음	1936.6	기업	공장
	1-1-2	제련	장항제련소 대연돌과 굴뚝	굴뚝을 높이기 위하여 돌산인 전망산 위에 굴뚝을 건립하여 당시 아시아 최대 높이. 1979년 굴뚝은 재건축 되었으나 건축적 가치보다는 상징적 가치가 높음. 최근 철거 및 보전 논의 중	1936.6	기업	공장
	1-2-1	철도	장항선	충남 및 일부 경기, 강원 일대의 미곡 및 물자 수송을 위해 건설. 현재 여객수송은 정지되고 환승제지로의 일부 화물만 운송. 주변에 창고와 여관 등 다수의 건축물이 남아 있음	1930.1	공공	화물수송
	1-2-2	철도	장항역	1930년 보통역으로 시작, 장항선의 종착역으로 과거 항구와 제련소와 연결된 장항선의 여객 종착역. 장항시가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	1930.11	공공	활용 계획중
	1-3-1	검사소	조선총독부 곡물검사소 장항출장소	충청도, 경기 및 강원 일부 지역의 미곡의 침탈을 위해 장항으로 운반된 미곡을 검사하던 곳 (추정)	1930년대	농협	공부방1, 방치2
	1-3-2	정미소	조선정미소의 사무실	과거 식량침탈의 중심 거점, 장항선으로 운반된 미곡은 이곳에서 정미를 마치고 주변 미곡창고에 저장 후, 장항항을 거쳐 일본으로 운송하였음	1930년대	개인	방치1, 주거1
	1-3-6	창고	미곡창고	과거 장항선으로 운반된 미곡을 임시 보관하던 미곡 창고로서 운송 효율성을 위하여 철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조선농회장항비료배합소로 추정)	1930년대	농협	방치
	1-3-8	창고	미곡창고	미곡 출항 전 저장하던 미곡 창고. 모둘화 되어진 콘크리트 기둥과 목조지붕이 특징, 서천군 매입	1930년대	공공	서천군 매입
	1-3-9	창고	미곡창고	조선정미소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대형 미곡창고 3개동이 있었으나 현재는 일부만 남아 있음	1930년대	기업	일부 멸실
	1-3-10	창고	미곡창고	조선정미소 인근 대형 미곡창고로 대한통운의 물류창고로 활용되었으나 2010년 멸실됨	1930년대	기업	멸실
	1-4-1	항만	장항항	1930년 건립되었으며 충남 유일의 국제항. 현재는 기능의 거의 정지됨	1932	공공	항구
	1-4-2	항만	장항 부잔교	한국 최초의 부잔교, 현재 거의 이용하지 않음	1932	공공	부두
	1-4-3	항만	수동잔교역	장항잔교역과 함께 군산과의 상거래를 위해 만든 잔교역이며 금강의 흐름에 의해 2개의 잔교역을 사용	1930년대	공공	미사용
	1-4-4	항만	항만노동사무실	장항항의 항만노동자 사무실로 현재는 이용하지 않아 방치 상태	1960년대	공공	방치
	1-4-5	조선	광양조선공업	충남 최초의 조선소. 현재는 과거 모습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나 선박 수리는 계속하고 있음	1965	기업	조선소
	1-5-1	면업	남북면업 주식회사 장항조면공장	면 침탈을 위해 설립한 목화를 면으로 만들던 공장, 해방 이후 목재소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방치 상태	1940년 5월	개인	방치
	1-6-1	공장	태흥공업사	과거 제련소에서 필요한 용광로 부품 등을 생산하던 공장, 철골조 구조임. 현재는 생산이 중지되고 방치되고 있음	미상	개인	방치

표 5. 계속

구분	번호	분류	명 칭	특 징	건립연도	소유	현용도
지원시설	2-1-1	주거	항만준설공사 사택촌	항만준설을 위해 건설되었으며, 과거 장항 지역 내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주거단지	1930년대	개인	주택
	2-1-2	주거	제련소 사택 및 합숙소	장항제련소 건립 및 유지를 위해 조성된 사택촌	1930. 1967(재건축)	기업	방치
	2-1-4	주거	떡전골목 주변주택	일제강점기부터 만들어진 시장과 사창가골목 건물의 전면부는 7~80년대, 건물 본체는 일본식 건물	1930년대	개인	시장/주택
	2-1-3a	주거	전용운 주택	제련소 벽돌로 지어진 소규모의 개인주택	-	개인	주택
	2-1-3b	주거	개인 주택	제련소 벽돌로 지어진 중규모의 개인주택	-	개인	주택
	2-1-3c	주거	개인 주택	일제강점기 때 건축된 2층 집, 장항역 역무원 숙소 인근 위치. 현재 방치	-	개인	주택
	2-2-1	숙박	한양여관	일본식의 여관 건물로 현재 방치되어 있음	1930년대	개인	방치
	2-3-1	종교	장항교회	장항 최초의 교회, 일본식 목구조	1930년대	개인	방치
	2-3-4	종교	교회(미상)	과거 교회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상가(애기단추)로 사용 중	-	개인	상점
	2-4-1	문화	장항극장	과거 서천군 유일의 극장으로 현재 개조되어 김공장으로 사용 중	1930년대	개인	공장
	2-4-2	문화	중앙극장	장항역 맞은편에 위치한 중앙극장(추정), 현재는 축협 창고로 사용 중	-	기업	창고
기타	2-4-3	문화	미라미 예식장	초기 사진관으로 개업, 장항주민의 많은 기억을 담고 있는 장소이며, 사진작가 김남용(1913-1985)은 장항과 관련한 많은 사진을 남김	-	개인	상가
	2-7-2	교육	농업전수학교	과거 농업전수를 위해 건립한 학교. 2010년 멸실됨	1930년대	공공	멸실
	3-1-1	재료	슬래그벽돌	제련소에서 생산 후 버려지는 슬래그를 활용한 벽돌 장항만의 독특한 건축재료, 현재도 도시곳곳에서 남아 있음	1937~ 60년대	·	·
	3-1-3	장소	제련소웅덩이	과거 금을 쌓아놓았던 장소, 금(원석)이 무거워 침하되어 웅덩이가 되었다가 되었다고 전해짐	-	기업	야적장
	3-3-1	마을	황금정	금을 만들던 마을이란 이름에서 명명된 황금정 마을	1930~40년대	·	·
	3-4-1	경관	일제강점기 가로경관	일제강점기 때 도시성장에 따라 형성된 가로경관	1930~45년대	·	·
	3-4-2	경관	해방이후 마을경관	해방 이후 피난민들에 의해 형성된 마을경관	1945~60년대	·	·
	3-4-3	경관	60~80년대 가로경관	60~80년대 경제성장기 때 형성된 가로경관	1960~80년대	·	·

사이 장항의 도시구조를 살펴보면, 장항역 동쪽(창선리)에서부터 시가지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군산과 연결되는 주요한 수송로인 수동잔교역과 장항잔교역이 역 동쪽에 위치했기 때문이라 추정한다(이선구 구술, 2008.10.25; 이대성 구술, 2009.4.20; 그림 4.a-2). 하지만 1937년 제련소 건립 전후로 장항의 도심시가지가 확장되며, 장항역의 서쪽(신창리), 신 시가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그림 4.b-2; 그림 4.a-1,3). 이에 따라 초기에 도시가 성립한 창선리 지역은 도시 형성 당시 필요했던 행정과 교통 관련시설이, 신창리 지역은 산업 발전에 따라 필요해진 치안과 상업시설이 주로 조성되었다. 현재에도 관련 기능은 유지되어

읍사무소, 은행, 버스터미널 등은 창선리에, 서천경찰서와 신시장은 신창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장항의 3대 산업시설인 장항항, 장항선과 장항제련소의 건립과 함께 사택촌 또한 조성되었다. 사택촌은 조성 당시 관련 산업시설과 일정 거리를 두고 건설되었으며 계획도면상에서도 도심 내부에 편입되기 보다는 외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미곡창고, 공장 등의 주요 산업을 지원하던 시설은 주거지와 혼재되어 철로와 항만 주변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거환경보다는 산업의 기능적 효율성을 우선시하여 조성된 결과라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충청도와 경기일대에서 유입된 미곡은 장항선과 장항역에

도착하여, 장항선 옆에 위치하고 있는 미곡창고와 조선정미소 등으로 운반되었고, 정미 후 장항항을 통해 일본으로 수송되는 선형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 외 장항제련소가 번성하며, 제련소 인근 황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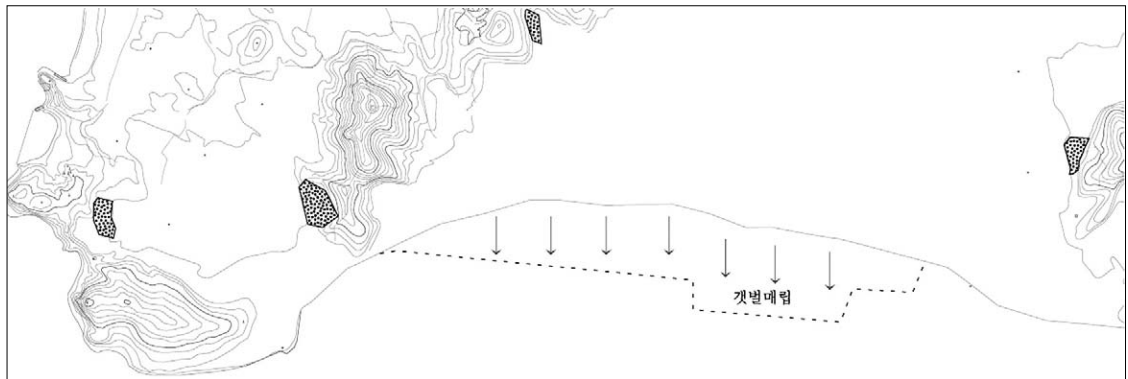
만드는 마을의 의미를 가진 '황금정'과 구락부(클럽)가 다수 조성되었다(그림4b-3). 다만 황금정은 지역의 산업 경제활성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조성된 취락지역으로 계획된 장항의 시가지 구조와는 차이를 보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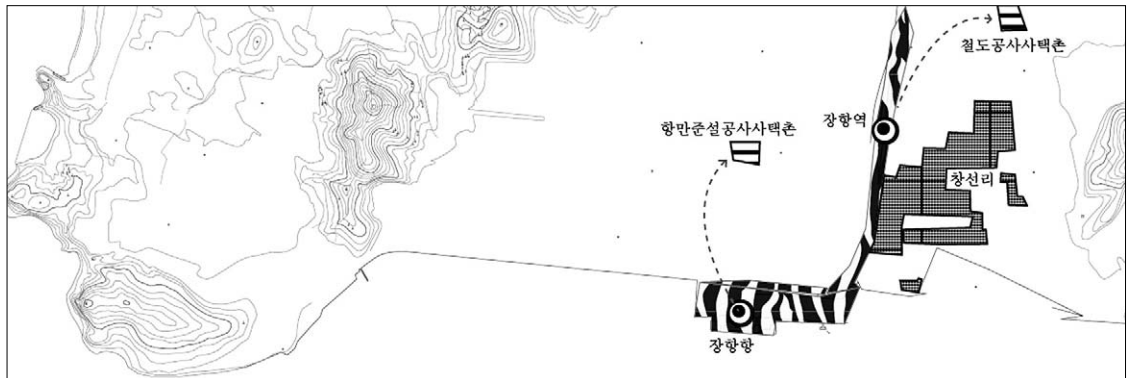
a-1. 장항항 수축계획도, 1936년(추정)
출처: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a-2. 장항시가지와 군산과의 연결 수송로
출처: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b-1. 1930년 이전 자연취락과 토지 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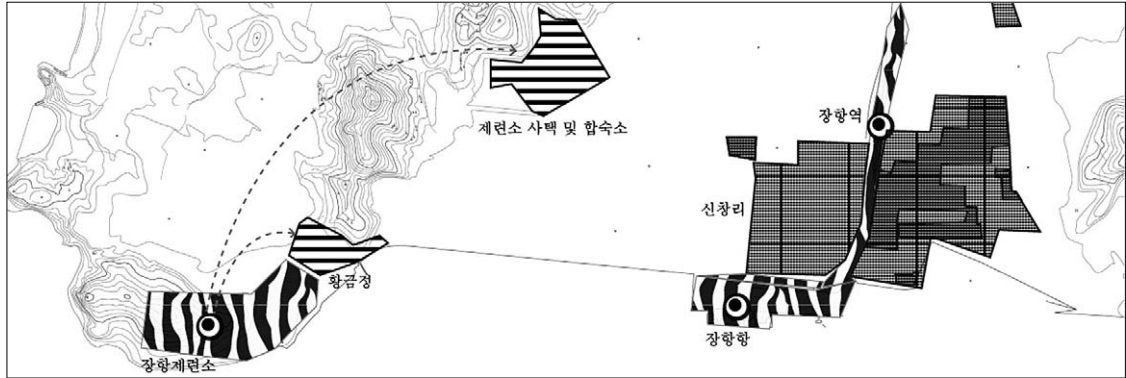


b-2. 1930년대 초 장항항과 장항선에 따른 도시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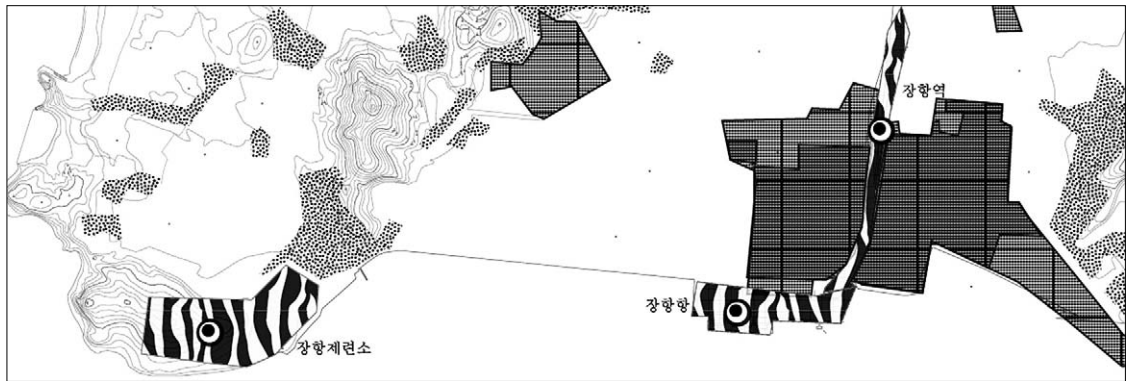
그림 4. 장항의 형성 과정

있다. 그리고 산업의 흐름에 따른 일부 내부 공간의 기능적 재편성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장항역 동쪽에서 장항도선장으로 연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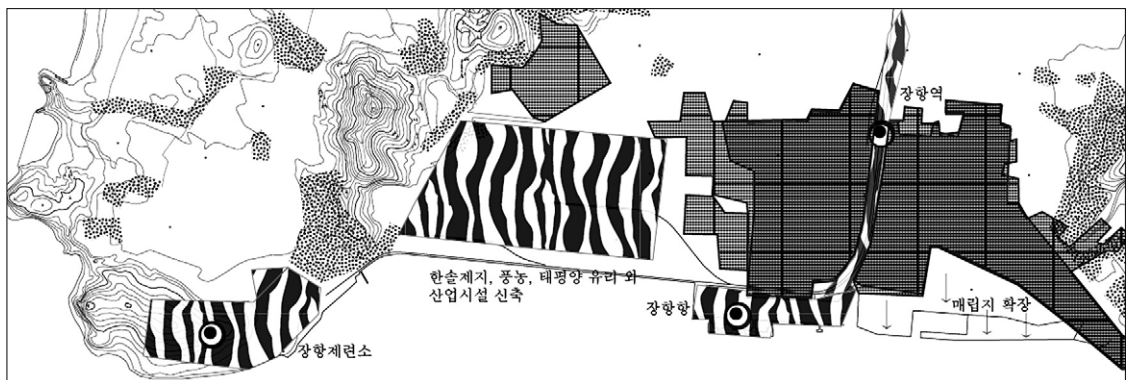
관촌이 형성되었다.²²⁾ 현재 이용자는 거의 없지만 여관과 여인숙(일부 빈집)들이 철로주변으로 분포하고 있다. 신 시가지인 신창리가 형성되며, 상권이 급속히



b-3. 1937년 이후 장항제련소의 건립과 도시의 성장



b-4. 195~60년대 도시의 확장(주변 취락 확장)



b-5. 197~90년대 도시의 확장과 새로운 산업시설의 유입

범례

- 장항 3대 산업시설
- 시가지
- ▨ 산업관련 사택촌 및 마을
- ▤ 주요 공장 및 산업화 지역
- ▧ 자연취락

그림 4. 계속

이동하였고 구 시가지(창선리)의 중심시장은 신창리로 이전되었다. 특징적으로 신시가지 조성과정에서 신시장을 중심으로 서천경찰서와 유곽(사창가)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일명 '떡전골목'으로 불리고 있다(그림 2, 그림 4.b-3). 이는 당시 일제강점기의 시대상과 장항의 6~80년대 도시 상황을 반영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방이후 장항은 기존의 계획적 도시 팽창 보다는, 자연발생적인 확장이 진행되었다. 특히 기존 신창리 시가지 주변으로 주거지가 증가하였다. 현재 대표적으로 남아 있는 곳은 신창리 서천경찰서와 시장 뒤편 일대와 장항극장 일대에 대표적으로 남아 있다(그림 4.b-4). 이후 60~80년대 장항 산업의 재 도약기를 맞이하였고 인구 또한 급성장하였다. 장항읍 인구는 1980년 당시 약 32,000명에 이르며 서천읍 인구의 1.6배로 서천군 내에서도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보였다. 하지만 도시공간의 확장보다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낡은 건물의 재건축 및 파사드 리모델링이 주로 진행되었으며 도시공간의 확장과 재편성은 크지 않았다. 재건축과 파사드 리모델링은 중심 상업가로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중심가로의 일부 건물 후면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건축을 유지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장항의 산업이 침체되며, 도시공간 또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90년대 전후부터 도시구조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인구감소(2010년 13,000명)에 따른 공동화 심화로 도시 내 유희공간은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장항역은 과거 장항의 도시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최근 장항선의 폐선으로 대형 유희부지로 남게 되었고 공동화의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반면 90년대 전후로 새롭게 한솔제지, 풍농 등의 산업시설이 건설되었지만(그림 4.b-5), 과거 산업시설이 도시와 폭넓게 연계되어 성장하였던 것에 반해, 새로운 산업시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시구조의 양적인 확장은 진행되었지만, 도시구조의 맥락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실제 관련 직원 중 장항에 거주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다.²³⁾

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한국 근대 산업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역사적 가치가 공유되지 못하여 점차 사라지고 있는 장항의 근대 산업유산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문헌조사, 현장답사와 주민인터뷰를 토대로 장항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산업화 과정과 도시 형성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다.

근대 초기 산업도시 장항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미곡 수요와 군수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장항의 산업화과정을 보면, 장항제련소, 장항항, 장항선과 장항역의 대표적 3대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으며, 주요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공장은 물론 주거, 상업, 공공 시설 등이 함께 건설되었다. 다시 말해 장항은 도시 전체가 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 조직처럼 연결되고 구조화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장항의 산업유산 분포 현황 조사 결과, 최종 현존 시설 45곳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조사 과정 중 개인주택과 제련소 벽돌과 일부 산업화의 흔적 등은 본 조사 결과 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관련한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부전문가에 의한 조사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부자인 지역주민의 참여를 동반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장항 관련 문헌자료가 부족함에 따라, 현황조사에 있어 대안적 방법으로 '장소기억'을 수집하고 이용하였다. 실제 현황 조사 결과 1, 2단계 문헌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한 대상은 총 68건 중 현존시설 9건 확인에 불과하였지만, 주민의 기억과 증언을 통해 추가한 결과(67건(9개소 포함) 중 45건의 현존 시설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현장에서 취득한 지역주민의 '장소기억'은 기록이 부족한 장소의 현황 조사에 있어 유효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장소기억'은 기초 현황조사뿐만 아니라 향후 이어질 장항 지역의 산업경관과 개별 유산의 심층 해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특히 ‘기록의 역사’에서 담지 못했던 역사적 내용과 도시공간에 관한 기억 정보를 추출해 냄으로써 역사 경관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향후 활용 시 외부자에게 간접적 ‘장소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본 연구에는 담지 못하였으나, 각 장항제련소에서 발생했던 사건들, 창고와 장항선의 관계, 제련소 벽돌의 흔적과 이야기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인터뷰는 새로운 방법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이미 선행되어 왔다. 다만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연구 방법론으로서는 아직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대의 경관을 만들고, 그 곳에서 생활해 왔던 지역주민의 장소기억 수집은 근대 경관의 해석과 보전에 있어 대안적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註

- 1) 장항이라는 지명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불리게 되었으며(1920년대 전후), 지역에서는 과거에는 백제시대 기벌포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남부면과 서부면일대가 현재의 장항 지역이었다. 1938년 서남면과 마동면 일부가 장항읍으로 승격되었으며, 서남면의 옥북리, 옥남리, 옥동리, 장항리, 마동면의 산서리, 수동리와 50만평의 간석지 삼기정, 화천정, 본정일정목, 본정이정목으로 구성되었다. 정이라는 명칭은 1988년 리로 개편되었다(장항읍, 1997).
- 2) 마길면 일부와 남부면 일대를 일컫는다. 그리고 장항제련소가 있는 지역은 장암(長巖)이라 불리었다. 현재 장항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으로 창선리, 신창리와 장암리로 구성되어있다
- 3) 2008년 7월 11일, 산업유산과 지역재생 국제 심포지엄: 장항제련소 문화적 보전·활용에 의한 서천의 지역활성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4)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전문가와 지역 공무원의 노력으로 미곡창고 1개동을 매입하여 활용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 5) 근대 문화유산 내 산업의 분야로 조사됨.
- 6) 2006년 7월 25~26일, 9월 15일, 9월 28~30일, 10월 14일, 2007년 11월 19일, 2008년 10월 25일, 2009년 4월 20일, 2012년 3월 21~22일, 2012년 4월 30일~5월2일.
- 7) 인터뷰는 주로 전 학교장과 교사, 전 장항제련소, 부두 등의 노동자, 부동산 관련 종사자, 전·현직 공무원과 향토사학자,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8) 구술증언이란, 한 개인의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기술하는 것. 유사용어로 심층면접, 구

술사 자료(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 9)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향토사학자 유승광의 많은 도움으로 진행하였다.
- 10) 산업시설(제련, 항만, 창고, 조선, 면업, 기타)는 1.1X~1.6X, 산업지원시설(주거, 숙박, 종교, 문화, 의료, 공공, 교육, 업무, 기타)는 2.1X~2.9X, 기타(경관, 재료 등)는 3.1X~3.4X으로 구분하였다.
- 11) 장소기억을 통해 도시와 과정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보다 많은 인터뷰를 통한 확인과 검증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12) 동아일보, 1931년 9월 4일, 급속도로 발전하는 신흥된 장항항 충남미 집산지. 동아일보, 1928년 9월 14일, 경남철정거장 장항리 결정.
- 13) 유승광(교사, 50대), 2006. 7. 26 구술. 서천 및 장항 지역을 20년 이상 연구해 온 향토사학자.
- 14) 동아일보, 1932년 4월 6일, 장항 축항식 성대히 거행, 총공비 35만원.
- 15) 동아일보, 1935년 10월 20일, 신흥 장항항 일대에 공장연돌 총립 해발 651척의 장관.
- 16) 동아일보, 1935년 5월 15일.
- 17) 동아일보, 1938년 9월 30일, 약진하는 장항.
- 18)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중화학공업의 육성시책이 발표.
- 19) 1주에 1회 제련공정을 거치고 있음. 다만 제련소 굴뚝은 사용하지 않음.
- 20) 조형구(제련소 근무, 50대, 장항 거주) 현재 장항제련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의 현황 소개, 박종천(과거 제련소 근무, 80대, 장항 거주) 과거 장항제련소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에도 구 황금정 마을에서 거주.
- 21) 이선구(공무원, 50대, 서천), 이대성(공무원, 50대, 장항). 서천군 공무원으로 이대성 분은 장항에서 태어났으며, 지역과 관련된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음.
- 22) 이선구(공무원, 50대, 서천) 2008. 10. 25 구술, 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참여하였으나, 계획 기간이(2개월) 짧아 장소의 역사성을 읽어내는데 한계가 있어 대안적으로 기존 시설의 최소한 철거(향후 계획을 위한)와 중심공간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오픈스페이스의 제공, 철도시설과 장항역사의 재활용을 제시하였다.
- 23) 김경필(농업, 50대, 장항), 방안균(부동산, 80대, 장항) 장항 내에서 태어나 장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장항발전위원회 일 등을 수행하며 지역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모두 기억하고 있음.
- 24) 당시 장항선을 통해 야간에 도착하여 군산으로 이동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였다. 현재 육상교통이 발달하여 이용자는 거의 없지만 다수의 시설이 현존하고 있다. 이선구 구술, 2008. 10. 25; 이대성 구술; 2009. 4. 20.
- 25) 예를 들어 한솔제지의 경우 직원이 100명 남짓이며 장항 지역 내 거주자는 20명 내외로 오히려 공주, 군산, 부여 등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조형구 구술, 2006. 9. 30). 이는 과거 주요 정미시설 시설 1개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200명을 넘었던 것에 비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文 獻

- 장항읍, 1997, 장항의 역사와 문화, 충남: 서천군.
- 장항읍, 2006, 장항의 역사와 문화(증보판), 충남: 서천군.
- 阿部薰, 1937, 발전하는 장항, 서울: 민중시화사.
- 권혁재, 1999, 한국지리-우리국토 전체의 자연과 인문, 서울: 법문사.
- 주식회사 LG금속, 1997, 엘지금속 60년사, 서울: LG.
- 서천군, 2008, 서천군 중장기 발전계획, 서천군.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3, 우리국토에 새겨진 문화와 역사, 서울: 논형.
- 발터 벤야민(윤미애 역), 2007, 1900년경 베를린의 유년시절 베를린 연대기, 서울: 길.
- 김일진?윤재웅?정진수, 1988, “대구지역 근대건축물조사보고서: 대구지역 근대건축의 유입과 발전”, 대구지역현대건축물조사보고서, 31-239.
- 강동진, 2003, “산업유산의 개념과 보전방법 분석”, 국토계획 38(2): 7-20.
- 권선정, 2011, ““지명”과 “길”로 읽는 근대도시 대전의 형성과 변천 -일제강점기와 그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45(3): 475-492.
- 남지현,김연진, 2009, “산업유산군의 공생의 의미와 지역 연계적 가치”, 대한건축학회 25(9): 215-222.
- 성종상, 2005, “산업시설 재생의 방향과 전략 연구”, 문화정책논총, 17: 105-141.
- 정이순?박철언?김경민?이광석?정량부, 2004, “근대건축의 형성 및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부산시의 근대건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4(1): 509-512.
- 송석기, 2004, “군산지역 근대건축물의 현황 및 변천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 20(10): 237-246.
- 조홍석?구명화?김정동, 2003, “진해지역 근대건축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9(4): 125-135.
- 권귀숙, 2004, “기억의 재구성 과정: 후체험 세대의 4?3”, 한국사회학, 38(1):107-130.
- 김인중, 2005,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기억의 장소들에 관한 문제제기”, 서양사론, 87:285-318.
- 윤미애, 2004, “도시 산보와 기억: 헤셀의 ‘베를린에서의 산보’를 중심으로”, 독어교육 29: 521-539.
- 김응중, 2011,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소’에 나타난 ‘기억’의 개념”, 프랑스 연구, 24: 113-128.
- 전진성, 2005, “역사와 기억: ‘기억의 터’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 서양사론, 72: 167-185.
- 페렉(이재룡 역), 1994, “W 혹은 유년기 기억-E에게”, 작가세계, 22: 427-469.
- 권선정, 2004, “지명의 사회적 구성”,지리학연구, 38(2): 167-181
- 홍금수, 2009, “경관과 기억에 투영된 지역의 심층적 이해와 해석”, 문화역사지리, 21(1): 46-94.
- 권선정, 2009, “경관을 통한 사회집단 간의 경쟁”,지리학연구, 42(4): 563-577.
- 장문현, 이정록, 2010, “GIS 기반의 역사문화적 분포 특성 시각화 연구: 섬진강 유역권을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44(4): 697-711.
- 김형태, 김희원, 2008, “인터넷 지도와 백과사전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국토지리정보”, 지리학연구, 42(3): 377-390.
- Casey, E. S. 2000. *Remembering*,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 Assmann, A. 1999. *Erinnerungsra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achtnisses*, Munchen: Beck C. H.
- Hessel, F. 1929. *Spazieren in Berlin*, Berlin: Stapp.
- Halbwachs, M. 1980. *The Collective Memory*. New York: Harper & Row
- ICOMOS. 2004. *The World Heritage list: Filling the gaps-an action plan for the future*. Paris.

접 수 2012년 4월 3일
최종수정 2012년 5월 18일
게재확정 2012년 5월 25일